

K팝 전성기 엔데믹에도 계속된다

가수 8개팀 100만장 이상 판매
BTS 영향...후발주자 낙수효과
세계 음악시장 주류로 자리매김

올해 상반기 K팝 음반 판매량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K팝 한류 전성시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춰 섰던 공연이 재개됐는데도 음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하반기에도 K팝 시장의 호황을 기대하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17일 씨클차트(옛 가온차트) 김진우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물 음반 판매량은 톱 400(1~400위 합산) 기준 3,494만7,247장으로 3,500만장에 육박했다.

전년 동기 대비 34.6%나 증가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최근 연도별 상반기 음반 판매량을 보면 2018년 1,048만장에서 2019년 1,293만장으로 늘더니 2020년 1,836만장, 지난해 2,596만장 등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음반 판매량을 가수별로 살펴보면 방탄소년단(BTS)이 452만3,749장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NCT 드림 398만2,696장, 세븐틴 272만858장, 투모로우바이투게더 210만4,740장, 스트레이 키즈 207만2,689장, 임영웅 114만2,727장 등이 뒤따랐다.

단일 음반 판매량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Proof)가 295만7,410장으로 300만장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그룹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올리며 정상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음반은 세븐틴의 정규 4집 ‘페이스 더 선’(Face the Sun)으로 237만3,052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K팝 음반 호황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대 해외 팬덤의 존재감이 드러난다.

올해 상반기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는 방탄소년단과 스트레이 키즈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4위), 트와이스 나연(7위) 등이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인기의 또 다른 척도로 꼽히는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는 해외 팬 의존도가 더욱 높다.

특히 태국을 위시한 동남아 팬의 경우 유튜브나 SNS를 통해 표출하는 열정이 미국, 일본, 중국 시장 팬들 못지않게 뜨겁다는 것이 잘 알려

져 있다.

실제로 유튜브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방탄소년단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수가 높은 국가 상위 10개국 안에 절반인 5개가 인도(2위), 인도네시아(5위), 필리핀(7위), 태국(9위) 등(동)남아시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례 없는 호황은 세계 음악 시장에서 K팝이 하나의 주류 장르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BTS가 K팝 시장을 한 10배 정도 키워냈다고 하면, 그 낙수효과로 다른 후발 주자 그룹들도 더 많이 소비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K팝 시장이 조명을 받아서 특정 아티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방대한 세계관, 영화로 구현될까 싶었죠”

류준열, ‘외계+인’ 도사 무극 역

최동훈 감독 신작 ‘외계+인’ 속 도사 무극(류준열 분)은 허풍을 떨지만 밋지 않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모한 행동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스럽다. 감독의 전작에서 배우 강동원이 연기한 전우치가 떠오른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류준열은 “첫 등장 장면만 보더라도 두 인물은 확연히 다르다”며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왕궁에 도착해 왕을 조롱할 정도의 능력을 갖췄지만, 무극은 개울가에서 동네 사람들과 탁주를 마시는 알차기 도사”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20일 개봉을 앞둔 ‘외계+인’ 1부는 고려 말과 현재 사이에 놓인 시간의 문이 열리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류준열은 높은 현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소문 속의 신검을 쫓는 고려시대 도사 무극을 연기했다.

그는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이방대한 세계관을 영화로 만든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면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 웃음과 감동, 짜릿함까지 있는 작품이었다”고 했다.

“감독님께서 인간과 인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인간을 따로 떼어내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을 통해 엮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지구를 구하려 한다는 게 참 좋아했어요.”

‘외계+인’은 고려 말부터 현재까지, 또 지구에서 우주까지 광범위한 시·공간을 넘



배우 류준열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나드는 SF다. 거대한 우주선이 등장하고, 하늘 한가운데 뚫린 미지의 문에서 자동차가 날아오는 등 화려한 볼거리가 더해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떠올리게 한다.

배우가 되기 전부터 최동훈 감독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류준열은 처음 작품 제의를 받고 “숨이 턱 막히면서 감격스러웠다”고 떠올렸다.

“‘최동훈 감독님과 꼭 작품을 하고 싶다’는 게 배우로서 제 목표 중 하나였어요. 감독님 작품을 다 좋아하지만 ‘범죄의 재구성’(2004)은 첫 하나하나, 대사 한 줄 한 줄 달 외울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과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짜릿했죠.”

‘외계+인’은 약 13개월 동안 1부와 2부를 동시에 촬영했다. 2부는 내년 개봉 예정이다.

/연합뉴스

티빙은 몸집 키우고 넷플릭스는 예능 강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플랫폼마다 각자 살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OT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주요 OTT 플랫폼들이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구독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는 예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한두 달에 한 편 이상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7편의 예능을 내냈는데, 연애 리얼리티 ‘솔로지옥’을 제외한 나머지 6편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그런데도 넷플릭스가 예능을 강화한 데는 거

액의 제작비가 투입되고, 제작 기간이 긴 드라마 시리즈나 영화만으로 콘텐츠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능은 드라마나 영화와 비교해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구독자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넷플릭스는 하반기 유재석, 이광수, 김연경이 전국 방방곡곡의 장인을 찾는 ‘코리아 넘버원’을 비롯해 4개의 예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반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토종 OTT 티빙은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티빙은 지난달 파라마운트+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티빙 내 파라마운트+관을 선보였고, 파라마운트+와 공동 투자로 2년간 7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뜨거운 열정에 대한 고뇌 담아”

제이홉 ‘방화’ 뮤직비디오 발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지난 15일 첫 솔로 음반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 전곡과 ‘방화’(Arson)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방화’의 뮤직비디오에서 제이홉은 사방이 불타고 있는 곳에서 비틀거리며 랩을 시작한다. 뮤직비디오의 중반부에 이르자 불타고 있던 곳의 사방에는 재만 남는다. 겹겹이 올린 점프슈트를 입은 제이홉은 여전히 노래를 이어간다. 뮤직비디오는 후반부에서 제이홉의

뜨겁게 뒤는 심장과 얼굴을 보여준 뒤 노래의 제목인 ‘Arson’을 비추며 끝난다.

제이홉은 지난 1일 공개했던 ‘모어’의 뮤직비디오에서 여러 공간을 이동하는 다이나믹한 연출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방화’에서는 최소한의 컷 편집으로 원테이크처럼 보이는 ‘페이크 원테이크’(Fake one take) 기법을 선보였다.

박히트뮤직은 “‘방화’는 강렬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힙합 장르 곡”이라며 “견잡을 수 없이 번져 버린 열정의 불꽃을 끄고 나아갈지, 아니면 더 뜨겁게 타오를지 선택의 갈림길에 선 제이홉의 고뇌를 표현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제이홉,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 발표

/빅히트뮤직 제공

이번 음반 커버는 미국 팝아티스트 카우스(KAWS)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카우스는 “제이홉의 솔로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돼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TV쇼 진품명품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별만한 아침 1부 8:10 해 별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 내 인생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미남당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맛에 산다 11:15 헬로킴지 체육교실 11:45 똑짜꾸조대2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25 꾸러기 탐구생활 10:55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25 2022 세계육상선수권 여자 100m 결승	6:10 세계테마기행 7:00 뽀롱뽀롱 뽀로로 7:15 우당탕탕 은하인전단 8:00 당동명 유치원 8:20 한글용사 아이아 9:05 그린조끼 구조대 9:20 꼬제버스 타요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50 EBS 다큐프라임 2:45 바닷가 사람들 3:35 안전채널 3:45 지식채널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5:45 출동! 슈퍼워즈 6:00 생방송 뚱뚱지 해결단 6:45 최고의 흥기심 딱지 7:30 한국의 둘레길 7: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큐프라임 10:45 맛터사이클 11:3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마인즈 11:55 클래식 e
12:00 통합뉴스룸 1:00 문화스캐치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통합뉴스룸 2:10 팔도방송 2:30 남북의 창 3:10 이웃집 철스 4:00 사사건건 5:00 통합뉴스룸 5:30 동물의 왕국	12:15 미남당 1:30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0 KBS 뉴스타임 3:10 갤럭시 키즈 3:30 TV 유치원 4:00 세상의 모든 다큐 4:50 연중 라이브 5: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도표지락 휘날리며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뽀뽀 좋아좋아 3:55 기분 좋은 날 4:55 5MBC 뉴스 5:10 안싸우면 다행이야	12:10 SBS 12 뉴스 12:50 동상이몽2 2:00 뉴스브리핑 4:00 좋은아침 스페셜 5:00 SBS 오뉴스 5:50 세상에 이런 일이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우리말 겨루기 8:30 오라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가요무대 10:55 더 라이브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50 황금가면 8: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9:50 미남당 11:00 개는 훌륭하다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비밀의 집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안 싸우면 다행이야 10:30 오영영 리포트 결혼지옥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생활의 달인 10:00 동상이몽2 11:40 접속! 무비월드	

오늘의 운세		7월 18일 (음력 6월 20일)	
‘소원’ 연서연 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子	48년생 잘못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60년생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72년생 금전적 인 문제로 속상할 일이 있겠다. 84년생 작은 소망이 실현되겠다.	 辰	52년생 가끔은 모르는 것이 약이 된다. 64년생 세상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76년생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88년생 절대 원한 살 일은 하지 말라.
 丑	49년생 아슬게도 계획대로 잘 안 된다. 61년생 분명히 아픈 만큼 성숙해질 것이다. 73년생 지금 찬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85년생 산 너머 산이다.	 巳	41년생 하는 일마다 손재수가 따른다. 53년생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온다. 65년생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77년생 동료의 허물은 덮어 주는 것이 이롭다.
 寅	50년생 힘들면 쉬어 가야 한다. 62년생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74년생 위험한 유혹을 조심하라. 86년생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성과를 낸다.	 午	42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54년생 돈과 명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이다. 66년생 제3의 길도 대안이 될 수 있다. 78년생 착한 자는 복을 받는다.
 卯	51년생 일단은 나부터 살고 봐야 한다. 63년생 절대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75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87년생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未	43년생 작은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 55년생 사랑이 없는 인생은 양고 없는 찌뽕과 같다. 67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 79년생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申	44년생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56년생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길지 않다. 68년생 더 이상의 방황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80년생 하면 된다.
		 酉	45년생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57년생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얻는다. 69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81년생 자만심은 절대 금물이다.
		 戌	46년생 믿을 것은 피붙이 뿐이다. 58년생 뿌린 만큼 거둘 것이다. 70년생 사랑과 친절은 이자가 붙어 돌아온다. 82년생 번민과 불안이 얼굴에 가득하다.
		 亥	47년생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지켜보기만 하라. 59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71년생 가끔은 삶은 일도 해야 한다. 83년생 드디어 승부수를 던질 때가 왔다.